



제 394 호 2015년 4월 22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안산국제거리축제

“작품을 통한 애도...
위축되지 말고 활기 되찾자”

04면 생태·관광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안산 한 바퀴
안산시티투어 출발!

06면 문화·예술

‘산업유물’은 문화재... “현대사의 단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08면 숲의 도시, 안산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원곡공원’

안산국제거리축제

FRI SUN
2015.5.1-5.3
안산문화광장 4호선 중앙역 | 고잔역

THU
프리페스티벌 원곡동 4.30
원곡동 다문화거리

CITY IN ACTION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안산국제거리극축제(Ansan Street Arts Festival)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거리축제 한 마당으로 '거리에서의 새로운 문화 발견'을 지향하며,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진두지휘하는 윤종연 예술감독을 만나 축제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었다.

Q 거리극이라는 장르가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거리극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요?

A 거리극을 비롯한 국내의 거리예술은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마임과 행위예술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행해지다가 2000년대 초반 거리예술을 중심 프로그램으로 하는 공연 예술축제들이 만들어지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역시 거리예술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Q 안산에서 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간의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잘 정비된 안산의 도시 특성을 살려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시민에게 공연의 즐거움과

“작품을 통한 애도… 위축되지 말고 활기 되찾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윤종연 예술감독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연극, 퍼포먼스, 무용, 마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야외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로 첫해에는 22개 팀이 참가한 축제에 10만 명이 참여했으나, 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던 장소를 광덕로 일대로 넓히면서 참여 인원이 40만2,000명에 달했어요.

2008년에 참가한 53개 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전국 축제로 발전했고 또한4년 연속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Q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2015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프로그램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공식참가작'과 '자유참가작'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성과 실험성이 부각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대중성 높은 거리예술작품을 위한 <광대의 도시>를 신설해 선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역에 대한 예술적 고찰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안산'이라는 도시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예술적 탐구를 시도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위대한 도시'의 <그랜드 콘텐넬탈>의 경우 춤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시민댄서 160여 명이 10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완성하는 커뮤니티댄스 작품입니다. <시민의 건축>역시 모집한 시민건축가들과 함께 사전부터 축제기간까지 종이박스로 거대한 건축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Q 3일 동안 공연되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관객들이 놓치지 말고 꼭 봐야하는 작품을 감상 포인트와 함께 추천해주세요.

A 어떤 특정 작품을 추천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액션!(City in Action)'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과, 예술적인 액션을 통해 표현하고 쏟아내며 만들어갈 도시의 활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액션은 관객들과 조금 더 농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예술가들의 몸짓이며,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위한 '큐' 사인입니다. 누구나 경계를 넘어 하나 되는, 거리예술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올해 축제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런 작품들에 참여해 직접 거리예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경험해보는 것 또한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일 겁니다.

Q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에피소드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작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일 년을 준비한 축제가 불과 개막 2주 전에 취소되었죠. 유가족들의 큰 슬픔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축제와 관계된 많은 스태프들과 예술가들 역시 여러모로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축제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예술가들 역시 그들 작품 속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방식을 제안할 것입니다. 안산 시민들 또한 축제를 통해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표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의 의미와 현대인의 삶을 담은 거리예술

국제거리극축제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국내 48작, 해외 13작 총 10개국 61작 내외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4월 30일에는 원곡동에서 '프리페스티벌-원곡동'으로 미리 축제를 만날 수 있다.

거리예술은 거리에서 공연되는 만큼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르이다. 모든 거리예술작품에 있어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가 지닌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또한 거리극 축제의 진화된 모델을 제시한다.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안산'이라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매년 축제에서 선보인다.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리예술인만큼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지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대화를 시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한솔 연출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티스트가 모인 '안산 순례길 개척위원회'의 <안산 순례길>은 관객과 함께 도시의 특정 성지를 순례하는 형태의 이동형 공연이다. 성지는 안

산이라는 도시성과 시민의 일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각각의 성지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설치, 체험 등이 진행된다. 성지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관객들은 기존에 스쳐 지날 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순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극단 '문'의 <올모스트, 단원>은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응시하는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2인극이다. 안산의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 시민배우로 참여해 사랑과 우정, 관심사 그리고 안산이라는 도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시의 트라우마를 안게 된 안산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은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예술이 갖는 치유와 연대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다.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은 <도깨비 야시장>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도깨비들이 세운 야시장에서 도깨비와 관객들이 함께 하는 참여형 야(夜)와 (外) 놀이극이다. 야시장의 다양한 좌판에서는 음악, 놀이,

춤, 연극이 펼쳐지고 관객들은 이를 함께 즐긴다. 이 작품은 도깨비와 야시장을 단순히 추억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되던 도깨비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 우리에게 잊힌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웨이인크랙'의 <스트리트 픽스토그램>은 사진을 통해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프로젝트다. 안산 곳곳의 사진과 축제 방문객들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길바닥 사진전을 연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전시된 사진들이 밝혀 훼손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삶과 일상의 은유를 느낄 수 있다.

'씨드 댄스프로젝트 그룹'의 <웰컴(W.C)>은 남자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행동과 심리를 통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와 해소에 대해 그린 무용 작품이다.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애환을 담아냈다. 일상적인 일들이 춤으로 재탄생되면서, 관객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ASAF 2015 안산순례길



ASAF 2015 올모스트, 단원



ASAF 2015 도깨비야시장



ASAF 2015 스트리트픽스토그램



ASAF 2014 웰컴(W.C)

춤이 주는 소통과 자유를 맛보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 '위대한 도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댄서들이 마지막곡 동작을 연습중이다.

지난 4월 9일 저녁,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위대한 도시 시민댄스단 워크숍이 종반기로 달려가고 있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폐막식 밤을 장식하게 될 '위대한 도시' 춤 공연은 총 6개 곡으로 이뤄지는데, 마침 이날은 마지막 곡의 동작을 완성하는 시간이었다. 시민댄스단 참가자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감이 묻어났다.

아시아 최초인 이번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다. 재즈와 남미음악 등 생소하지만 흥겨운 음악들은 보는 이들까지 저절로 몸을 흐느적거리게 만든다.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경험하는 자유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코리안 섹션이 추가되어 더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중간에 한국무용 동작

을 연상케 하는 자유로운 춤도 있고, 안산의 아픔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서 함께 헤쳐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해서 더 큰 의미를 준다.

무엇보다 '위대한 도시'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공연을 올린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직업과 나이,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몸으로 춤을 배워가면서 특별한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춤을 배우며 처음에는 작은 동작도 쑥스러워 했던 참가자들이 두 달간 연습을 통해 어느새 막춤을 취도 아무렇지 않은 두꺼운 얼굴과 활력을 가지게 됐다.

사동에서 왔다는 한 주부는 "고려인분들과도 매주 얼굴

맞대고 춤추다 보니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눈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으며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냥 함께 몸을 움직이는 것뿐인데도 그 안에서 서로 소통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참여한 박정란 씨는 "같이 온 딸이 매일 재촉도 하고, 하루라도 연습을 빠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며, "몸이 안 따라주지만 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공연을 앞둔 걱정과 기대감을 동시에 전했다.

고잔동에 사는 전지호 씨는 "몸치였는데 리듬감을 익힐 수 있어 좋았다."며 "춤을 추며 삶의 활기, 활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항상 춤 연습을 하는 것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공연이 끝나면 많이 허전할 것 같다."며 "이번 거리극축제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정말 좋았다."고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했던 61세 고진숙 씨는 "세계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성도 있고 작품성도 높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이걸 다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함께 온 이재희 씨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춤 연습을 하면서 요즘은 침도 안 맞으러 다닐 정도로 몸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있다."며 웃었다.

160여 명의 시민댄스단이 함께하는 중독성 있는 커뮤니티 댄스공연 '위대한 도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폐막식이 열리는 5월 3일 저녁 8시 30분에 안산문화광장에서 공연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위대한 도시 참가한 시민 댄서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문화광장 교통통제 안내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관련 관람객의 안전과 다양한 행사를 위해
광덕로 안산문화광장 진입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축제 개요

- ◆ 축제명 :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 ◆ 기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3일(일)
- ◆ 장소 : 안산문화광장(NC, 홈플러스, 메가박스 앞)
- ◆ 프로그램 : 10개국 61개 공연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2. 교통통제 내용

- ◆ 통제기간 : 2015년 5월 1일(금) 00시 ~ 5월 4일(월) 05시
- ◆ 통제구역 : 네스앙스(고릴라극장) 사거리 ⇄ 놀부보쌈 사거리 양방향 전면



◆ 통제기간 동안 우회도로 및 대중교통, 도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안산 한 바퀴

안산시티투어 출발!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의 멋과 아름다움, 특색을 전하는 '안산시티투어'가 시작됐다.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 대부해솔길,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 안산의 관광지를 한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가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된다.

올해 시티투어는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갈대습지공원, 다문화거리와 전통시장 등 문화·예술 탐방을 특화한 시내권 관광 코스 2개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바다항기테마파크, 대부해솔길, 어촌민속박물관 등 보물섬 대부도를 돌아보는 2개 코스, 유리섬박물관, 종이미술관 등 관광과 예술체험이 가능한 코스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교육, 갯벌 체험과 수도권 유일의 재래식 소금 생산지 동주염전, 대부도 와이너리 등 30명 이상 단체 손님이 자유롭게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하는 맞춤형 코스 등 6개 코스로 구성됐다. 성인 6천 원, 65세 이상 어르신·유치원생·학생은 4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광이다.

지난 4월 11일 토요일, 본 기사는 조력발전소를 경유해 대부 바다항기 테마파크, 누에섬 전망대까지 갔다 오는 바다항기 코스에 동승했다. 안산시티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산의 명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스토리텔러가 전하는 숨은 이야기들로 안산을 재발견할 수 있는 매력 이 있다.

중앙역에서 10시에 버스가 출발하자 안경순 스토리텔러는 “안산이 ‘안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많은 분들이 안산을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얻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쓰인 때는 고려시대인 940년으로 1075년이나 된 유서 깊은 곳이 안산”이라고 설명했다. 버스가 와~스타디움을 지나 조치동 연립주택단지 변에 이르자 “안산시가 처음 조성됐을 때 제일 변화가였던 곳이 이제는 재건축을 앞둔 슬럼가로 변했다.”며 “도시는 사람과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버스가 안산역을 지나 시흥시로 접어들자 “여러분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안산·시흥 땅을 딛고 있다. 가로등이 갈매기 모양에서 직각 형태로 달라지면 시흥시를 지나고 있음을 아시라.”고 했다. 그는 또 안산은 도로와 공원을 먼저 만들고 집과 공장이 뒤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인구 30만을 목표로 했지만 인구 76만의 거대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버스는 어느덧 1차 행선지인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도착했다. 조력관 터 라이트 25층 전망대에 오르자 시화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 송도신도시가 이웃마을마냥 가깝게 느껴지고, 마침 밀물 때라 시화호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흐름도 볼 수 있었다. 11.7km에 달하는 시화호 방조제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에는 국내 최대길이의 방조제로서 현대건설 고 정주영 회장이 폐 선박을 이용해 현대미포조선소를 짓던 특유의 방식으로 쌓았다고 한다. 시화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를 심어 조성한 갈대습지공원은 “그 누구와 걸어도 사랑에 빠질 만큼 낭만적”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담수호를 포기한 시화호가 생태환경이 되살아나면서 갈대습지공원이 생태계의 보고

로 거듭나고 있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덧 투어 일행을 바다항기테마파크로 이끌었다. 시티투어 버스가 대부도에 들어서자 어릴 적 추억을 자극하는 동춘 서커스장이 보인다. 과거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을 때 특별한 재밌거리를 제공하면서 전국을 누볐던 수많은 서커스단이 모두 사라지고 동춘 서커스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단원들은 한국인 3명만 빼고 모두 중국인들로 정통 중국기예를 선보이고 있다.

멀리, 1년에 1m씩 자란다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테마파크를 에둘러 서있는 게 보인다. 청춘불패 촬영지의 풍차, 4월 23일 대부도 꽃 축제에서 선보일 튜립의 빛깔과 모양이 화려하다.

투어일행은 마지막 행선지로 대선방조제를 따라 탄도항 어촌민속박물관에 도착했다. 물이 빠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나, 누에섬 전망대까지 이어졌다. 장화로 갈아 신은 사람들이 갯벌에서 돌을 들춰 작은 게를 잡고 바지락을 캐다. 투어 일행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대부도에 감사했다. “탄도는 숲을 만들던 가마터가 남아 있어 그리 볼린다.”는 해설과 함께 대부도 특산물 대부포도, 동주염전 껌파리 소금, 본오들의 본오 으름살까지 스토리 텔러의 자부심 섞인 안산자랑 속에 시티투어 버스는 중앙역으로 향했다. 시간은 어느덧 약속한 5시에 가까워졌다. “보물섬 대부도에 또 오세요.”라는 말이 귓전에 맴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와~스타디움에서 즐기는 태국여행... ‘송끄란 축제’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아 일정 변경, 오는 5월3일 열린다



송끄란 기간 동안 축제를 즐기는 태국인들 모습



태국 고유의 설날축제 ‘송끄란’이 5월 3일 와~스타디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변화·이동’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Sankrandhi’에서 유래한 송끄란은 태양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해 새해 첫날이 되는 4월 13일을 기념하는 축제로, 태국 고유의 설 명절에서 현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 함께 즐기는 물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4월13일에서 15일까지 송끄란 기간에는 몸에 물기가 마르면 그 해의 운이 다한다고 믿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원한다. 전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태국에서는 불상과 집

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통해 지난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를 맞이하며, 집안의 어른들께 존경의 의미로 손에 물을 뿌려드리고 어른들은 축원의 의미를 담아 자손들의 머리에 물을 뿌린다.

송끄란 기간 동안 태국인들은 우리가 설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송끄란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안산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이주해온 태국인들이 이곳에서 설 명절을 맞아 느끼는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2007년부터 송끄란 축제를 열어왔다. 매년 4월 13일을 전후해 열리던 송끄란

축제가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산시민과 애도의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5월 3일에 열린다.

태국 노동청과 주한 태국대사관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해를 맞는 자국 근로자를 위무하기위해 다양한 행사로 축제를 마련했다. 이날 축제는 태국 현지 송끄란을 방불케 할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보인다. 사람들은 축수식과 함께 얼굴에 하얀 진흙 ‘단소푹’을 바르고 축원의 의미를 담아 서로 물을 뿌려주며 즐기는, 송끄란 축제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근무하는 570여 명의 태국 근로자 중 선고운 남정네가 여장을 하고 미인대회에 나선다. 또 태국의 전통무술 ‘무에타이’ 시범 공연과 발로 공을 차 네트를 넘기는 일종의 족구와 같은 ‘세팍타크리’ 대회도 펼쳐진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또한 선보인다. 세계 3대 스프 중 하나인 ‘똥양깡’과 볶음쌀국수 ‘팟타이’ 등 손꼽히는 태국음식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을 예정이다.

지난 해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던 송끄란 축제는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외에도 전국에 있는 태국인과 안산시민, 송끄란 축제를 알고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축제를 공동주최하는 안산시 관계자는 “2015 안산 송끄란 축제를 즐기는 내·외국인 모두 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옛 방식 그대로... “음식은 손맛이 최고” 콩마을 가마솥 손두부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으며 ‘우수 맛집’으로 선정된 ‘콩마을 가마솥손두부’를 찾았다.

‘콩마을 가마솥손두부’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정겨운 분위기가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원목 테이블과 기둥, 한지로 마무리한 문짝, 커다란 벌집과 맷돌 등 옛 우리네 삶을 그대로 간직한 소품이 아늑하다. 조리실은 유리로 창을 내어 손님들이 두부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커다란 가마솥과 물에 담가 놓은 신선한 콩을 보고 있노라니 옛 고향집 뒤향당을 보는 것처럼 정겹다.

하명수 대표(54세)는 97년 대우사태 때 20여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중소기업체 두세 군데를 전전하다 6년 전에 ‘콩마을 가마솥손두부’를 개업했다.

화성에서 손두부 식당을 운영하는 처이모에게 부부가 함께 손두부 제조법과 기본음식을 배워 시작했다. 하 대표는 “집사람이 장모님께 물려받은 음식솜씨에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열정도 식당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사업 성공의 공을 안주인에게 돌렸다.

하 대표는 아침 9시부터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다. 전날 밤 미리 물에 담가 불려놓은 콩을 씻어 갈아내면 비지와 콩물이 생성된다. 가마솥의 물이 끓으면 콩물을 넣고 30분간 더 끓인다. 다시 콩물을 식히면서 화성 염전에서 공수해온 간수(바닷물)를 넣으면 몽글몽글 손두부가 만들어진다. 이

순두부를 틀에 넣어 굳히면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두부가 완성된다. 하 대표는 “가마솥에 끓여 만든 두부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시중에서 파는 두부에는 염화마그네슘이 쓰이지는 우리처럼 간수를 넣으면 건강에도 좋은 두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천연간수를 사용해 옛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내는 이곳은 2013년 10월 KBS ‘생생정보통’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화제의 맛집으로 떠오른 적도 있다.

“전화기 옆에 한 사람이 붙어있어야 할 정도로 방송의 위력을 실감했죠. 매상은 평소보다 2.5배 이상 되었고 하루 평균 150명이 다녀갔어요. 방송 이후 6~7개월까지 손님이 꾸준했어요. 세월호 여파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경기 불황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64.9%가 ‘국내 경기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불황에 대비하는 1순위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해 하 대표는 전통음식 거리 땡이골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경기 불황에다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안산의 침체된 분위기, 더구나 땡이골은 교통편이 불편해 종업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손님이 줄자 음식점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거용 빌라가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웰빙 음식인 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이다. ‘콩마을 가마솥손두부’는 두부버섯전골, 두부보쌈, 두부정식, 순두부 등의 대표메뉴에 8가지 반찬과 고슬고슬하게 지은 돌솥밥이 나온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비지를 덤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비지는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나중에 물과 비지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먹으면 맛있다.”고 한다.

딸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던 손님 김재선 씨(52세, 사동)는 “오늘은 딸이 좋아하는 두부버섯전골을 먹으러 왔어요. 처음 들었는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나네요. 직접 만든 손두부라니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통음식 거리 땡이골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맛집이 다시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의 : 콩마을 가마솥손두부 ☎ 031-407-1233
- 주소 : 상록구 땡이길 80 (사동 1348-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창업으로 제2의 커리어 쌓으세요”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열려



인생 100세 시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5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채로운 경력 위에 사회적 경제 교육과 모의사업 진행을 통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사회적경제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주길 기대하며 기획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아이디어 구체화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분야별 전문가와 성공한 사회적 기업 대표가 밀착 지원한다. 또 매 강의마다 토의를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컨설팅 등을 실시해 기존에 종사했던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성격과 맞는 일 등을 사회적 문제와 연계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력을 살린 창업 이외에 업종 전환이 필요하면 새로운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 병행되기도 한다. 전체 수료자 중 20명에게는 창업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각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주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앙동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총 20회로 진행된다. 수강인원은 총 40명이며 신청은 4월 24일까지이다.

한편, 창업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사회적 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도울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주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9일까지고 모집인원은 청년 10명, 주부 10명 총 20명이다.

서포터즈는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고 조사해 안산시 사회적 경제 블로그에 올리고 SNS를 통한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도 지원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은 자원봉사로 인정되며, 창업 준비자에게는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과 기업이 멘토 연결, 창업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4월 29일까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481-3521~2
-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산업유물’은 문화재… “현대사의 단면 보여줘”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기업 현장 조사 ‘주목’



삼보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PC ‘SE- 8001’



대한민국 수출 1호 PC ‘Trigem 20XT’



월급을 보관했던 경방의 ‘금’

안산시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기업 현장 조사를 실시·확인한 산업유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화랑유원지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작년 유물조사용역을 통해 총 2,583건의 산업 유물을 확인했으며, 현재 임시수장고에는 30년 전 밤샘 작업의 손때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타자기, 옛 직원들의 하루를 보여주는 출근부, 80년대부터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

을 보관하던 목직판 무쇠 금고, 공장 준공 당시 만들어진 빛바랜 사훈 등 산업 현장의 각종 흔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산업유물’이란 근·현대 산업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로 최근 문화재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포니 자동차’ 등 일부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가 되기도 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외의 근대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기업은 삼보컴퓨터다. 1980년 7월, 서울 청계천 한 구석에서 자본금 1천만 원, 직원 7명으로 삼보컴퓨터의 전신인 삼보엔지니어링(1982년 1월 삼보컴퓨터로 변경)을 설립해 회사 설립 6개월 만인 1981년 1월 국내 최초의 PC ‘SE-8001’을 만들었다. ‘SE-8001’은 TV 모니터에 자판을 결합한 형태의 개인용 PC였으나, 당시 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지 못했다. 삼보컴퓨터는 1983년에 ‘Trigem 20XT’를 생산, 캐나다에 1,200대 가량 수출했다. 대한민국 수출 1호 PC인 이 컴퓨터는 개인이 사용했다.

안산시 산업정책과 김동완 과장은 “안산스마트허브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구술조사를 통해 유·무형 자료를 함께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 ☎ 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누아주(Nouage) 작가 故 신성희, 고향 안산에서 첫 전시회

40년 화업 돌아볼 수 있는 시대별 작품과 자료… ‘기대’



신성희 ‘연속성의 마무리’

누아주(Nouage)라는 독창적 기법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던 故 신성희 작가(1948~ 2009)의 회고전이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신성희 작가는 1948년 안산에서 태어나 현 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대 회화과를 나와 1980년대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창작에 매진하며 회화에 대한 본질적 탐구와 새로운 시도로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회화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그는 일명 ‘마대 위에 마대’라는 연작으로 실재와 환영 사이에 존재하는 회화의 양면성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으며,

이후 1980년대에는 콜라주 작업을 통해 자신의 조형적 실험을 확장시킨다. 화려하게 채색된 판지를 불규칙한 형태로 찢어 붙임으로써 회화의 평면성에 입체감을 불어 넣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초반 ‘박음’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마침내 그의 창조적 예술작업의 결실인 ‘누아주(Nouage)’를 탄생시키게 된다.

‘누아주(nouage)’는 점, 선, 얼룩 등 다양한 컬러로 채색된 캔버스를 얇은 두께의 길이로 잘라 이를 다시 손으로 하나하나 엮어 나감으로써 평면을 해체하여 3차원 공간에 또 다른 회화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이다. 이는 “해체와 건설, 혼돈과 질서, 압축과 긴장, 당김과 뭉침의 실험들은 평면에서 입체의 현실로 변화되어 우리들은 바람이 오가는 공간의 문을 열게 하였다.”(2005, 캔버스의 증언)라는 그의 말에서처럼 끊임없는 해체와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예술에 대한 영원성을 창조한 것이다.

이번 단원미술관 전시는 그의 고향에서 열리는 회고전인

만큼 초기 마대작업부터 누아주에 이르기까지 그의 40년 화업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각 시대별 대표작품이 각 섹션별로 전시되며, 1969년도 국전 특선 작품을 비롯하여 1970년대 초반 초기 유화작품들이 최초로 공개되어 그가 이어온 창작활동의 변천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다.

더불어 작가가 살았던 안산에서의 유년시절 모습과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던 파리 아틀리에에서의 모습과 동료 예술가들의 교류, 그리고 그가 생전 작업을 구상했던 스케치와 드로잉, 오브제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그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입체적인 관람을 도울 것이다.

• 전시 : 4월 30일~5월 30일
• 문의 : 단원미술관 ☎ 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세월호 참사 추모전 ‘망각에 저항하기’

오는 24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려

‘가차 없이 흐르는 것에 앞에서, 어떻게든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는 서수경 작가의 작품 ‘그 마음’의 부제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망각에 저항하기’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작가님 그림은 어떤 거예요?”라는 질문에 작품 앞에 나란히 섰다. 작가의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인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서로 축축해진 눈을 바라보며 ‘망각에 저항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잊지 않기’보다는 ‘더 강렬한’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잊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의식적으로 맞서야 되고,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일시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전시 제목을 정했다.

이번 전시는 몇몇 작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인터넷 공모를 통해 참여할 작가를 모집했다. 304라는 상징적인 수의 의미로 ‘304인의 작가가 다가서다’라는 부제를 담



서수경 ‘그 마음’

았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3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판화, 조각 작품 4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팽목항이나 광화문 집회, 분향소 등에서 찍은 사진작가의 작품 70여 점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지나해 말부터 기획된 전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인터넷 공모를 마쳤다. 전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상흔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작가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작가들에게 참사 1주년 추모 전시에 관한 인터넷 공모는 힘이 되는 일이었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다.

전시 오픈일인 4월 10일에는 15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작품을 설치했다. 택배로 받은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이 직접 가져와 설치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버스를 빌려 함께 전시장을 찾았으며 합동분향소도 다녀왔다.

전시 담당자는 “304인의 희생자. 그들은 희생자 304인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잊고 사는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우리의 연장으로 이 냉혹한 땅에 균열을 내고 단단한 새싹들을 밀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전시를 궁리한 첫 마음”이라고 말했다.

• 전시 : 4월 10일~4월 24일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2 전시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안산시민들이 맞은 세월호 1주기

“비 오는 하늘, 아이들 마음 같아 아파요”

문화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4월 16일, 합동분향소에는 계속 비가 쏟아졌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세찬 바람에 다 떨어져 눈물자국처럼 바닥을 하얗게 뒤덮었다. 추모식이 예정되었던 오후 2시에는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년 전 그날처럼 분향소를 나오는 시민들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분향소 기억의 편지쓰기 부스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던 성화운 씨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겹는데, 아이들과 유가족들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아팠다. 아직까지 이뤄진 게 없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멍한 상태로 1주기를 맞았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억만 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날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았던 강정미 씨는 “4월 10일 이후 계속 우울하고, 봄인데 꽃이 눈에 안보이고 흐릿했다.”며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비가 그친 오후 7시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안산시민 추

모문화제 ‘지난 봄, 너의 눈물’이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와 안산시, 온마음센터가 공동주최한 추모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과 손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고교연합밴드 기억의 보컬 황유진 양은 올해 단원고를 졸업한 학생이다. 단원과 후배들과 선생님에게 띄우는 편지를 낭독하며 울먹이던 유진 양은 윤이나 선생님을 추모하며 만든 자작곡을 부르며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학교 조희대 벚꽃나무 밑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공놀이 하던 너희들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이야. 아침마다 모두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도하던 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사랑해, 동생들아.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로 꾸린 노란 물결 합창단은 ‘너의 의미’ 등의 노래 가사를 개사해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다. 합창단을 지휘하는 이혁재 씨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3년 동안 지휘를 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단원고에서 아

픔을 겪은 제자가 있다.”며 “제자 유미지, 권지혜, 보고싶고, 사랑한다. 잊지않을게.”라는 말을 남기며 노래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문화제는 시민들에게 미리 나눠준 노란색 풍선을 하늘위로 띄우며 마무리 됐다. 수천개의 노란 풍선이 맑은 밤하늘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마음들이 안타깝게 하늘에 떠돌고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세월호1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추모식에 참여했다.

영정사진 들고 눈물로 걸었던 세월호 엄마들의 ‘1박 2일’



4월 4일 토요일 아침, 1년여 만에 다시 수의를 입고 영정사진을 받아든 엄마 아빠들은 오열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영정사진을 목에 건 250여 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향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1박 2일의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500여 명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도보행진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노란 리본과 풍선, 응원의 메시지를 장식하며 함께 했다.

도보행진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가족



영정사진들고 도보행진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협의회 ‘예은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발이 부르르도록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참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진상이 밝혀지지는커녕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며 “다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은 우리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유가족이 ‘우리는 치유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많은 유가족들이 자신이 못나서 자식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이

들을 치유했어야 할 1년이였다.”며 “희생자 9명을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우리가 치유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누군가를 찾듯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한 아버지는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어루만지듯이 영정사진에 붙어 있는 작은 먼지들을 계속 닦아내고 있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는 생생함 그 자체였다.

1박2일 도보행진은 단원고와 하늘공원을 거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서울 광화문에서 오후 5시에 촛불문화제를 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도보행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형제자매들 70여 명도 함께 참여해, 세월호 시행령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꽃이 피면 꽃을 지우고 싶고, 봄비가 내리면 하늘을 잡고 싶은 봄”이 찾아왔다고 말하던 유가족들에게 4월의 봄은 여전히 잔인하고 아팠다. 그 고단한 일정에 유모차를 끌고, 배낭을 메고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머리위로 작은 벚꽃 봉우리들이 아파게 피어나고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원곡공원'



원곡공원에서 바라 본 전경.



리모델링을 통한 산책로와 30여 개의 지도와 수도, 인구 등을 새긴 벽이 조성된 다문화광장.

이웃 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의 편안한 쉼터

원곡공원(단원구 원곡동 963-14)은 안산시에서 가장 먼저 조성한 공원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을 건네면 반갑게 웃으며 한국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낯선 한국인의 말 건넌이 오히려 반가운 그들은 이미 다문화 공동체로 살아가는 안산 시민으로 여가를 누리고 있다.

원곡공원은 안산시 승격 직후인 1987년 산지형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이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조성을 요구, 2014년 리모델링되었다.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넓은 화장실을 신축

하고, 공원 내 광장과 산책로 정비, 보안등과 CCTV설치 등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였다.

특히, 10개소의 CCTV를 설치해 안전을 기했으며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원 다문화 광장에 중국, 카메룬, 필리핀 등 30여 개의 지도와 수도, 인구 등을 새긴 벽이 조성되어 있다.

현충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중국에서 온 50대 아주머니는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한국에 건너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여동생 가족과 함께 나와 있어 좋다.”는 아주머니는 “퇴근하고 거의 매일 이곳에 와서 산책을 해요. 빨리 돌지 않고 천천히 주위 구경하며 돌아요. 이제 꽃이 피면 더 멋진 거예요. 철쭉, 개나리 여러 가지 꽃이 심어져 있거든요”라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빨리 돌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빨리 돌 필요가 없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걷는다.”는 현답을 했다.

타지 생활에 힘들지만 이렇게 가까이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 참 좋다는 다문화 가족들. 그들은 이곳에 와서 고향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다고 한다.

원곡공원에는 조성당시 건립됐던 현충탑이 있다. 또한 지난해 리모델링하면서 한국전쟁 UN참전국과 한국전쟁 참전·월남 참전 유공자를 새긴 조형물을 세웠다.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던 원곡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현충탑 등을 통한 민족의 얼을 기리고 다문화광장, 화합의 장으로 이웃 주민과 다문화인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반월공원' 이야기



벚꽃이 만발한 반월공원 모습

작지만 정겹고 따스한 우리 동네 사랑방

안산의 독립운동가 안송현 선생의 숭덕비가 세워진 반월공원은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해 있다. 도시 근린공원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공원의 부지 면적은 44,732㎡이며 공원 내에는 교목 316그루와 관목 1,060그루 등 총 1,376그루의 나무와 기반·휴양·편의 시설, 자

전거 보관소, 면적 24㎡의 관리사무소와 그밖에 공연 천막과 풍차 등이 있다.

반월공원은 4월의 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초입부터 벚꽃이 늘어서 있으며, 농구대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 동네 공원임에도 작지 않은 규모에 깨끗한 환경, 산책길 등 매력적이다. 산책 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곳곳에 있고 고갯길을 걷다보면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팔각정도 보인다. 북쪽에는 본오중학교와 본오초등학교, 각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원과 선진학교, 상록수성당 등이 있다. 서쪽에는 동산고등학교와 이호초등학교, 본원초등학교 등이 있어 오후가 되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특히, 놀이터를 지나 내려 오다보면 주민들 발 건강을 위한 건강지압길이 있으며, 공원 안쪽으로는 2014년 11월에 은빛둥지회와 안산시청이 함께 마련한 20여 개의 새집도 발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반월공원을 건강을 위한 산책로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방, 아이들의 놀이터, 배드민턴 동호회 등 친목도모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4월부터는 안산시생활체육회와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공동 주관으로 '안산시 생활체육 건강체조 무료교실'과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운동교실'을 열어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고 아담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월공원은 정겨움과 따스함이 묻어나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에버그린21,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환경체험교육 실시



안산갈대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환경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태교사(장성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갈대습지공원, 계절마다 시간마다 모두 다른 생태계의 보고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안산갈대습지공원의 봄은 조금 천천히 온다. 지난해 베어낸 갈대에서 연둣빛 새싹이 올라 오고 나무 데크 아래에는 어른 팔뚝보다 큰 잉어와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며 봄을 알린다.

지난 4월 10일, 갈대습지공원을 찾은 석수초 4학년 학생들은 두 조로 나뉘어 환경체험을 했다. 최현미 강사와 함께 생태투어를 시작한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제일 먼저 환경생태관에 들러 시화호의 역사부터 시화호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던 아이들은 박제해 놓은 고라니와 도요새, 꿩, 갈매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탐방로를 따라 가며 수질정화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갈대와 부들, 버드나무, 연꽃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나무 데크 아래에서 유유

히 헤엄치는 커다란 잉어였다. 잉어 옆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에 아이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가희수 양과 박수빈 양은 “소시지처럼 생긴 부들이라는 식물 이름도 재미있고 또 그게 열매라는 게 신기해요.”라며 “잉어와 물고기를 실제로 보니 정말 재밌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장성희 강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체험장 견학을 하는 아이들은 거울로 햇빛을 모아 온도를 올리는 태양열 온도계와, 역시 햇빛을 비춰 라디오를 작동하는 태양열 라디오를 쳐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태양열을 이용해 익힌 메추라기 알을 까 먹기도 했다. 아이들은 불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열만으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냥 신기해하며 태양열을 잘 이용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에버그린21은 지난 4월 1일부터 안산갈대습지공원 환경체험교육장에서 신재생에너지체험장 견학과 안산갈대습지 생태투어 안내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장만 견학할 경우 1시간, 신재생에너지 체험장과 안산갈대습지공원 생태투어를 같이 할 경우 1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올해로 5년째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장성희 강사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습지가 안산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많은 시민이 갈대습지를 방문해 몸과 맘의 쉼을 얻기 바란다.”고 말한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한다. 월요일은 휴장한다.

• 문의 : (재)에버그린 21 환경체험교육장 ☎ 031-599-9415
안산갈대습지공원 ☎ 031-481-3810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삼일초 야구부, 경기도 대회 ‘우승’, 전국대회 출전권 ‘확보’

김상엽 감독 “실력만이 아닌 인성까지 갖춘 선수로 키우겠다”

삼일초등학교(상록구 월피동) 야구부는 1994년 창단되어 현재 2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6학년 9명, 5학년 6명, 4학년 2명 그리고 저학년 8명 총 25명이다. 삼일초등학교 야구부의 큰 장점은 저학년부터 꾸준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엽 감독과 김수한, 유성범 코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정규 수업을 마친 선수들은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야구 연습을 한다. 고학년은 주로 운동장에서, 저학년은 3년 전 건립된 체육관 실내에서 연습을 한다.

지난 4월 9일 운동장에서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세 명씩 짝을 이뤄 배팅 연습과 투구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고쳐주느라 감독과 코치들은 바빴다.

이런 땀방울을 흘린 결과 삼일초등학교는 시흥 정왕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 겸 제40

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 강호인 안양 연현초등학교를 꺾고 우승했다. 경기 첫날인 3월 30일에 첫 경기 상대인 희망대초를 6:2로 이기고, 3월 31일에는 역북초와의 경기에서 부전승한 뒤 4월 1일에 백마초를 5:3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4월 2일 결승전에서는 작년 우승팀인 연현초를 7:2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일초 야구부는 이번에 결승전에서 연현초를 이김으로써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야구부 우승과 함께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출전권을 따내는 등 명실공히 초등야구 명문학교임을 입증했다.

김상엽 감독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내일의 프로야구 선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여 5월에 있을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야구실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닌 인성을 겸비한 선수를 기르려

고 노력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6학년 임동건 선수는 “공부도 재미있기는 하지만 성격상 뛰면서 하는 야구가 더 재미있는 거 같아요. 학교와 학부도 남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삼일초는 이번 전국체전 출전권 외에도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삼일초 야구부는 경기도의 신흥 야구 강호로 자리매김하고 내일의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 문의 : 삼일초등학교 (☎ 031-487-6143~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내가 캔 나물이라 더 맛있어요”

대부도 학란 동심마을, 시골밥상 봄나물 체험 행사 ‘인기’



“엄마, 이것도 먹는 거예요?”라고 묻는 아이의 손에는 냉이가 들려있다. 대부 학란 동심 좋은마을운영회 김선철 간사의 진행으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들은 아이들은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갔다. 마을 이곳저곳에는 특별히 기르지 않았어도 봄기운을 받은 냉이, 쑥, 달래 등

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라있었다.

봄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자연독성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용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칫 독초를 식용할 경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도심 도로변에

서 나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도로변에서 자란 나물은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봄나물을 먹을 때는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후 조리해 먹는 것이 좋다.

다양한 나물을 가득 캔 가족들은 직접 캔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점심식사 준비를 했다.

또한 마을에서 준비한 떡메를 치며 인절미를 만들고 옷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옷놀이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봄나물로 전을 부쳐 옷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서로 맛을 보면서 입안 가득 봄을 느꼈다.

선부동에서 9살, 8살 된 두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최진 씨(35세)는 “호미를 들고 나물을 캐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어른인 나도 냉이인줄 알고 캐는데 나중에 엉뚱한 걸 캐다는 걸 알고 좀 당황스러웠다.”며 “비도 오고 인원도 많아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식사 때 나온 말린 가지 무침은 인기 최고였다.”고 말했다.

안산시 좋은마을추진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02명의 가족단위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뤘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선철 간사는 “이번 행사는 2015년 안산시 좋은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행사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참가한 시민들이 앞으로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포도농사체험 등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꼈다.”며 “참가한 가족들이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시골의 정을 듬뿍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농업기술센터 '전통주 연구회' 술 빚어 정 나누고... 선조들의 음식문화 명맥 잇는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 거리는 벚꽃천지다. 잠시 일상을 미뤄놓고 꽃들이 펼치는 향연에 고개를 돌려보자. 이때 운치를 더해줄 음료가 곁들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꽃그늘 아래서의 소주는 약간 강박한 느낌이고, 맥주는 거품만큼이나 가볍게 여겨진다. 와인은 도회적 느낌이 강해 잘 꾸며진 실내에서 더 어울릴 것 같고, 결국 쌀·누룩·물로 빚은 우리의 전통주가 제격일 것 같다.

철마다 때마다 고유의 전통주를 빚어 이웃과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동아리가 있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아카데미 전통주반에서 1년 과정으로 가양주 제조법을 배운 회원들이 '전통주연구회'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심우태 회원(58세, 해양로)은 "전통주 매력에 빠져 사업은 뒷전이 됐다"며 "연구회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술을 빚고 서로 품평을 해주는 재미가 크다. 오는 5월에 청주에서 열리는 전통주 대회에 회원들 여럿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4월에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되는 전통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쌀 씻는 법부터 고두밥찌기, 밑술·덧술 만들기, 누룩 띄우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회원들은 이듬해 연구회에 들어와 술 빚는 솜씨를 늘렸다. 현재 2012년과 13년 수료생 22명으로



'전통주 연구회' 회원들 (좌로부터 심우태, 강미여, 김계숙, 한미경)

구성된 전통주연구회는 정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모여 술을 담가 이웃과 나누고 국내·외 전통주 관련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면서, 명절이나 제사, 혹은 잔치가 열릴 때면 음식의 한가지로 술을 빚어 즐겼던 선조들의 음식문화를 되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집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제일 먼저 술을 담갔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동아리회원 중에는 어렸을 적 할머니나 어머니가 담갔던 술 맛을 기억하는 회원들도 있다. 2014 경기도 전국

가양주 주인(酒人)선발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며 솜씨를 인정받은 김영일 회원(66세, 사동)은 "군복무 시절, 지역의 할머니가 직접 담가 건넨 막걸리 한사발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술을 담가 그 맛을 재현해 보고 싶은데 아직 그 맛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전통주연구회 회원들은 전통주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열린 제6회 국(麴)선생선발대회에서 1, 2위와 특별상을 받았을 만큼 활동에 열심이다. 한미경 회원(48세, 본오로)은 이 대회에서 "술맛이 뛰어났다"는 평가와 함께 1위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였다. 집안에 제사가 많아 직접 담근 술을 상에 올리고 싶어 전통주 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한미경 회원은 "술을 담가 이웃이나 친지분들께 나눠 드리면 아주 좋아하세요. 특히 명절 때는 인기 최고"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열리는 전통주 관련 행사나 대회에 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알리며 참여를 권유한 심우태 회원(58세, 해양로)은 참쌀로 빚은 방문주로 2위에 올랐고, 교육기간 내내 회원들을 살뜰히 챙겼던 최지연 회원(48세, 본오로)은 특별상을 받았다.

올해 전통주연구회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정을 수료한 회원 20여 명이 새롭게 동아리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고려인 3세 임이고르 씨의 안산살이 “언어와 정신은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 임이고르 씨(54세, 선부동)를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에서 만났다.

'너머'는 야학을 통해 한국어 교육, 모국 문화 체험,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처한 고려인 동포들의 긴급의료지원, 각종 통·번역, 노동 상담, 법률지원 등 모국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단체다.

구소련 와해 후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일하러 온 동포를 국내체류 고려인이라 부르는데, 선부동 땃골에는 5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모여 산다. 오랜 이주역사와 강제이주로 인해 모국어를 상실한 탓에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너머'는 고려인 동포의 모국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임이고르 씨는 2003년 3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3년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다. 17살 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학비를 벌기 위해 불법취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와 수원 등지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배우던 임이고르 씨는 2007년에 안산의 세라믹 회사에 취업을 했고, 안산에 정착하면서 부인과 아들도 함께 이주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등 임 씨의 직계 가족은 모두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어머니의 형제 즉 외가 친척들은 아직 모스크바 등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독립할 시점에 군대에 가 있던 이들은 국적이 없어지거나, 한 가족이 5개 국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한다.

임이고르 씨는 한국말을 무척 잘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어를 배워 일상어로 사용했다. 특히 '빨래'의 고려

는 '서답'이라고 알려주며 "고려인들이 한국인보다 순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어깨를 으쓱한다. 우리말의 뿌리를 간직한 고려인 임이고르 씨의 한국 이름은 임성재다. 형제들 이름은 항렬에 따라 '재'를 돌림자로 쓴다.

우즈베키스탄의 풍습 때문일까, 사라져가는 민족 정서에 대한 회한일까. 임 씨는 "한국은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DMZ(비무장지대)에서 북쪽 땅을 바라볼 때는 무척 속상했어요. 러시아 최극단 유배지인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땅을 일구던 조상들이 눈에 아른거려더군요."라며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교육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4월말, 여권이 만료되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와야 하는 임 씨는 "땃골에서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정말 좋아요. 먼저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이 서툰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 큰돈을 바라지는 않아요. 고려인 동포들이 모두 잘 살도록 도와주며 살려고 해요."라고 말하며 '너머'의 통역 요청에 다시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신선명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기자수첩

길 위에서 길을 묻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매화가 한꺼번에 꽃을 열었나 싶더니 금방 벚꽃이 만개했다.

봄바람에 자지러지듯 하얀 꽃잎이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리고, 떨어진 꽃잎들은 아스팔트의 거친 바닥에서 굴리고 쓸리며 연분홍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훈 작가는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들이 아직도 거기에 뻗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지난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 해에 '안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이후 열 네 해를 지내는 동안 두 아이가 태어나 자랐다. 당시 새천년,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나는 지금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나온 그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반월 국가산업공단이 스마트허브로, 시화호가 백조의 호수라 불리며 생태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기도 미술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들어섰고, 갯벌을 매운 땅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그 신도시의 대로 한가운데에 광장이 만들어지자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만들어내며 변해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안산 시민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보듬는다.

아프고, 또 아프다.

봄꽃이 만발한 도시에서 우리 모두는 숨죽여 운다.

봄 나무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꽃들을 내놓았다. 꽃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화사한 꽃들을 바라본다. 투명한 햇살 아래서 눈이 시리다.

5월, 국제거리극축제가 시민과 함께 걸어갈 치유의 공간을 마련한다. 거리예술을 중심 프로그램으로 하는 축제는 지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은유적 대화, '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축제 슬로건인 '액션!(City in Action)'은 예술가들의 '몸짓'과 시민의 행동이 시작되는 '큐'사인을 의미한다. 마음 한 편에 묻혀 있는 아픈 기억들을 외면하는 대신, 길 위에서 치르는 치유의 축제에 참가해 활기를 찾길 바란다.

신선명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개소



안산희망마을사업추진단 개소식에서 식전행사로 진행된 난타공연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달린 희망나무

지난 4월 10일,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 단원구청사 내에 문을 열었다.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가장 컸던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양하고 폭넓

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분위기와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은 마을의 현안에 대한 토의, 사업 발

굴, 비전 수립 등 동별 4~5개 권역으로 특화된 테마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정부 지원사업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안산시민에게 큰 상처를 줬고 아직도 그 고통은 진행 중”이라며, 피해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여 살맛나는 마을로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특히, 집중피해지역인 3개동을 온기가 있고 살아 숨 쉬는 희망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직접적인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 팔을 걷어 돕는 사람 등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희망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운다.

• 문의 : 안산희망마을사업추진단 (☎ 031-481-6011)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랑을 나누는데 장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지부, 사랑나눔 무료급식 봉사

지난 4월 9일,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에 위치한 (사)경기도농아인협회안산지부에서 만난 농아인 최미순 씨(45세, 고잔동)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 활동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즐거워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라며 “요즘엔 우리에게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화를 배우기 위해 오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일을 마친 후 봉사자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느끼는 즐거움”이라 말한다. 지난 2011년부터 사랑나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농아인들은 10여 명이다. 대부분 전업주부지만 2~3명은 야간에 일을 하는 주부들이다. 월2회 무료급식소 봉사가 있는 날이면 오전에 급식소에 가서 재료손질부터 시작해 조리과 배식 후 설거지까지 한다.

수화(手話)는 손의 움직임과 얼굴표정,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로 농아인들의 1차 언어다. 그러나 농아



사랑나눔무료급식소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급식준비를 하는 농아인들

인이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배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인이 수화를 배우지 못할 경우 농인들끼리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 폐쇄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서적 장애와 성격 왜곡이라는 막다른 길까지 다다

르게 된다. 농아인에게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지원센터 홍순옥 사무국장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지정해 달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아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수화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듯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화라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아인협회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한국영화에 한글 자막을 덧입혀 상영한다. 그동안 자막 없는 비디오에 길들여진 이들이 자막을 덧입힌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 서로로 인해 행복해 질 수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폐기처분될 아름드리 나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안산시, 재건축 아파트 수목 200그루 녹지대로 옮겨 심어



재건축단지 나무를 인근 공원에 옮겨심은 모습

재건축을 앞둔 모든 주민이 이주한 중앙주공아파트 2단지 내 수목들이 폐기처분의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

로 키우는 데는 비용 외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령 30년이 넘는 나무 200

그루를 옮겨졌다. 안산시는 30여년 전 어린 묘목에서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2단지 수목 200그루를 안산의 공원과 녹지대로 옮겨 심었다.

재건축단지의 나무들은 보통 수령이 30년 이상이지만 옮겨 심는 비용이나 장소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건축이 진행될 때 대부분 건물철거와 함께 폐기처분됐었다.

시는 어린 묘목을 거목으

로 옮겨냈다. 느티나무, 화백, 잣나무, 목련, 단풍나무, 라일락 등 거목들은 성호공원과 역사공원, 호수공원, 안산의 기타 녹지대로 이식되어 ‘숲의 도시’를 꿈꾸는 안산과 미래를 함께하게 됐다.

이상관 안산시 공원계장은 “수목이식은 봄에 새 잎이 나오기 전이 가장 좋은 때인데, 주공 2단지 나무들은 그 시기가 잘 맞았다. 우량한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은 까다로운 작업으로, 이식과정 중에 뿌리나 줄기, 가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식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물만 남은 2단지의 모습은 삭막하고 생경스럽다. 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수목 재활용 사업을 통해 도심 속 풍부한 녹지대가 만들어져 숲과 함께하는 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현대의상 과정에서 가방을 만들고 있는 수강생들

“배움을 넘어 나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 주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 4월 9일,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현대의상실에서는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치마’를 만들고 있었다. 사동에 사는 김미경(56세) 씨는 “옷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지인이 소개해 오게 되었다. 재봉틀을 처음 만져봤지만 가방, 앞치마, 잠옷에 이어 치마를 만들고 있다. 앞치마는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내가 내 옷을 만든다는 게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초급과정은 총 3개월과

정으로 옷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과 재단, 봉제과정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배운다.

2002년 개관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와 안산시,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근로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

고 있다.

16개의 직업능력개발과정, 17개의 근로자야간과정, 9개의 사회문화과정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총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강 대상을 만65세 이하로 했던 댄스어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벨리댄스는 어르신들의 요구로 현재는 만70세 이하로 연령을 높여 모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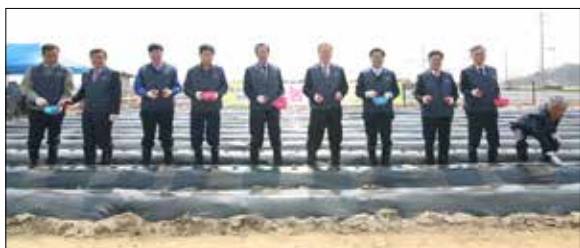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창업교육, 직업알선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에서 느끼는 고충 처리, 임금(퇴직금)과 산업재해피해보상,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황정숙 사무국장은 “낮 시간에는 근로자 가족을 위해, 밤 시간에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란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이 든다.”며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은 수강생들이 배움을 넘어 나눔을 원할 경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마술동화구연을 배운 지역주민들은 매월 1회 지역아동을 위해 마술 공연을 하고 있으며, 독서지도사 과정을 마친 주민들은 매주 1회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

타인과의 공감, 타인과의 소통,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삶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다.(재료비 및 교재비, 자격증 취득 전형료 별도) 2015년 2기 정규프로그램 수강신청은 5월 6일(수)부터 1인 1강좌 기준, 인터넷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미달프로그램에 한해 1인 1강좌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 031-475-3360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 함께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나눔농장 개장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약 1,200평 농장부지를 안산상공회의소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장애인,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에게 나눠준다는 목적으로 나눔농장을 개장했다.

이 날 행사에는 지역사회 주요 인사와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감자 모종식을 함께 했으며 나눔 농장의 풍작을 기원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더욱 지역사회가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나눔 농장은 감자 파종을 시작으로 7월과 9월에는 지역 내 유치원,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대상 ‘울통불통 감자 캐기’ 농장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12월에는 주민센터 및 새마을지회 등 복지시설과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고 전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직접 땅 흘려 농사를 짓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과 희망을 전해 줌과 함께 속죄하는 마음을 깊게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 업무와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다. 작은 실천을 통한 한걸음이 가까운 미래의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 어둠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속에서 작은 불씨로 살아나길 희망해본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애들아 뭐하니~ 함께 놀자~” 안산시니어클럽, 상록수 전래놀이 지도사 활동 시작



상록수 전래놀이 지도사가 아이들과 함께 전래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안산시니어클럽과 안산시평생학습관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부터 면접을 통해 선발된 3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록수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지동 소재 시립원초어린이집 앞에 모인 지도사들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어린이집 강당에는 5~6세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도사는 능숙한 솜씨로 손 유희와 율동을 하며 아이들을 집중시켰다. 오늘의 놀이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지도사가 시범을 보이며 놀이를 설명하자 아이들은 곧잘 따라하며 놀이에 빠져 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놀이시간. 술래를 정한 후 나머지 아이들은 여우를 향해 “한 고개 넘었다, 아이고 다리야, 두 고개 넘었다, 아이고 허리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라며 묻고, 술래는 “세수한~다”라고 화답하며 놀이가 진행되었다.

놀이의 절정은 마지막 질문. 아이들이 술래를 향해 큰 소리로 “죽었니? 살았니?” 묻고 술래는 “살았다!” 소리치며 잡으려하자 나머지 아이들은 쏠살같이 달음질친다.

잡힌 아이가 다시 술래가 되어 놀이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커지고 몸짓도 활발해졌다.

어린이집 교사는 “전래놀이는 명절 전후로 일회성으로 해왔다. 아이들이 지도사들과 함께 다양한 전래놀이를 접할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현재 지도사들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지수 사회복지사는 “상록수 전래놀이 지도사는 놀이 문화의 부재 속에 사는 요즘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별한 도구 없이, 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지혜로운 놀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사들은 월초에 학습지도안을 구성하고 활동에 필요한 교구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보완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지혜를 모으곤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녀는 물론 손자까지 키워낸 풍부한 육아 경험과 어우러져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삶을 즐기는 지도사들에게 나이는 한낱 숫자에 불과해 보였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은빛 머리카락이 한없이 멋스럽다.
• 문의 : 안산시니어클럽 ☎ 031-401-8181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10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열어 건의안 3건 등 안건 의결

안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건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설치가 조사위를 관제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의원 박은경)을 의결했다.

또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범시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공공기관 등에 조기 계양을 가능토록 한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계양 건의안’(대표 발의 의원 김재국)을 가결 처리했으

며, 아울러 지난 1983년 상록구 수암동 산5-7번지에 건설돼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수리산 생태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의 이전과 부지 양여를 촉구하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의원 이상숙)도 채택했다.

이외에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 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 티타임을 열어 부의 안건 등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양지초등학교 학생 20여 명도 의회를 방문해 의회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회의를 방청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독/자/투/고

마지막 승부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찾는다.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있다. 친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직장을 잃은 지 벌써 몇 개월째라고 한다. 한없이 밝고 명랑하던 친구가 겪었을 일들이 목소리에 묻어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야 /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내일 /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잊지 마 / 내 전부를 거는 거야 / 모든 순간을 위해 /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 포기는 안 해 / 내겐 꿈이 있잖아

20년 전 흥행했던 드라마의 삽입곡이다.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의 승부와 좌절,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쯤 앞두고 대학입시로 한창 바빴던 때였다.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한껏 들떠 있었고 실패한 친구들은 좌절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언니와 오빠가 순조롭게 입시와 입사의 문턱을 넘은 것에 비해 나는 어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막내딸이었다. 알아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딸이기를 바랐지만 난 늘 부정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실을 비판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흐트러져서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기 일쑤였다.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 부어오른 손마디와 불편한 무릎으로 힘겨워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으로서 놓을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하기에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컸다.

며칠 후 내 생일날 어머니는 어렵게 가게문을 닫고 시간을 뱃다. 아침에 간단히 미역국을 먹고 생일선물로 옷을 고르러 시장에 갔다. 어머니가 골라준 옷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감사히 받아들였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당겼다. 좁은 계단으로 따라 내려가니 이제 막 문을 연 듯 노래방에서 퀘퀘한 냄새가 났다. 마이크를 잡은 어머니가 고른 노래는 ‘마지막 승부’였다. 어머니는 노래 가사에 마음을 담아뱃다. 한 번의 실패는 연습일 뿐이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가 옆에 있음을 믿고 달려가라고.

그 날 이후 나는 다시 학업에 매달렸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기다려 준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은 결과 이듬해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노래.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의 음성과 함께 방황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어느새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2층 창문에 기대앉은 친구의 옆얼굴이 보인다. 친구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목청껏 소리쳐 불러주려다. 마지막에 비로소 너 웃는 그 날까지.

김현주(단원구 고잔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2015년 국가 암 검진 안내

검진대상

※ 홀수년도 출생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표를 받으신 분

암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기본검사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단, 의료급여 만 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1년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

대장암(분변잠혈검사) 팁 : 대변통은 검진기관에 제출

상록수보건소(☎481-5928), 단원보건소(☎481-3469)로 연락주시면 대변통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①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변용기를 사용



② 농, 혈액, 점액이 많은 부위를 택하여 강낭콩 크기 정도(약 5g)를 채취합니다.



장 출혈 여부 확인



③ 소변이 섞이지 않게 채취



④ 대변용기에 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을 기재하고 검사가 지체될 경우는 차고 서늘한 곳이나 4℃ 냉장보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지정된 검진기관을 이용하세요.
- 기본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연말에는 검진예약이 밀리니 서둘러 병원에 예약 후 검진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무료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481-5928), 단원보건소 (☎481-3469)

상상 그 이상을 꽃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대부바다향기

Flower
Festival

꽃 축제



2015

4. 23(목) ~ 26(일)

체험 · 참여 · 부대행사

장소 :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대부도 방아머리 인근)

주최 :  안산시 [문의 : 안산시민원콜센터 ☎ 1666-1234]

